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75호

I	<p>명품 멜론 '백자' · '노을' 품종, 싱가포르 시장 진출</p>	
II	<p>국산 신선 당근 미국 수출 길 열려</p>	
III	<p>수출 농산물의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 면제 합의</p>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75호 2020. 6. 26(금)

‘20.5.31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38.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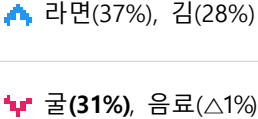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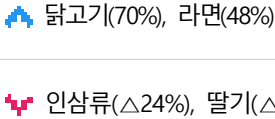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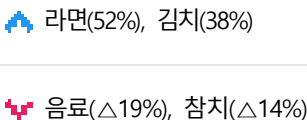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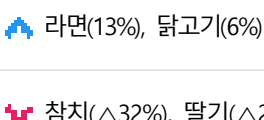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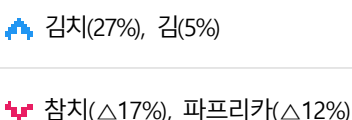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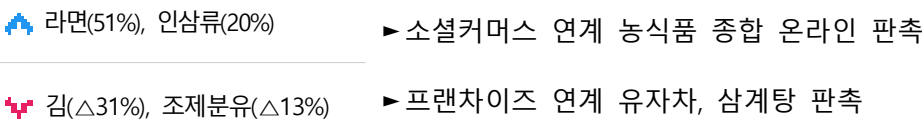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0.7% 536백만불	  2.8% 2,417백만불	  15.2% 893백만불
+ 김치, 닭고기, 배 - 인삼류, 파프리카, 딸기	+ 라면, 쌀가공식품, 조제분유 - 켈런, 음료, 커피조제품	+ 오징어, 바지락 - 김, 참치, 굴

국가별

* 쌀 무상원조 실적('19(2.0백만불), '20(1.8)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p>미국 576백만불(22.8%)</p> <p>▶ 인플루언서 연계 농식품 종합 온라인 판촉</p>	 <p>라면(37%), 김(28%) 굴(31%), 음료(△1%)</p>
 <p>닭고기(70%), 라면(48%) 인삼류(△24%), 딸기(△1%)</p>	 <p>홍콩 171백만불(△0.1%)</p>
 <p>라면(52%), 김치(38%) 음료(△19%), 참치(△14%)</p>	 <p>EU 233백만불(△2.1%)</p>
 <p>라면(13%), 닭고기(6%) 참치(△32%), 딸기(△2%)</p> <p>▶ 태국 대형유통업체 연계 김치, 장류 판촉</p>	 <p>ASEAN 737백만불(△3.1%)</p>
 <p>김치(27%), 김(5%) 참치(△17%), 파프리카(△12%)</p> <p>▶ 온라인몰 연계 김치, 파프리카 판촉</p>	 <p>일본 801백만불(△7.4%)</p>
 <p>라면(51%), 인삼류(20%) 김(△31%), 조제분유(△13%)</p> <p>▶ 소셜커머스 연계 농식품 종합 온라인 판촉 ▶ 프랜차이즈 연계 유자차, 삼계탕 판촉</p>	 <p>중국 603백만불(△8.5%)</p>

☆ 🌞🌞 : 15%이상 / 🌞 : 5~15% / ☁️ : 0~5% / ☁️ : 0~△5% / ☁️ : △5~△15% /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0. 1. 1 ~ 5. 31



“ 김치 ”

- ◇ 가정식 증가로 인한 반찬류 소비 확대
및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주목

59,325천불(36.6%)

- ▶ 주요 수출국 : 일본(30,406천불, 26.9% ↑), 미국(8,870, 52.6 ↑),
홍콩(3,026, 44.6 ↑), 호주(2,598, 92.9 ↑), 대만(2,589, 66.6)

“ 라면 ”

- ◇ 필수 식료품 위주 소비 증가로 온·오프라인 구매 모두 증가 추세



- ▶ 주요 수출국 : 중국(66,751천불, 50.9% ↑), 미국(28,543, 36.5 ↑), 일본(22,409, 52.9 ↑)
대만(12,566, 66.3 ↑), 태국(11,364, 51.9 ↑), 호주(10,092, 22.6 ↑)

249,301천불(35.6%)



“ 소스류 ”

- ◇ HMR 수요 확대에 따른 매운 소스 등 수출 호조

118,510천불(18.3%)

- ▶ 주요 수출국 : 미국(27,252천불, 21.0% ↑), 중국(23,611, 43.2 ↑),
러시아(11,735, 23.6 ↑), 일본(8,642, △6.3), 베트남(5,255, △1.7)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명품 멜론 '백자' · '노을' 품종, 싱가포르 시장 진출

농촌진흥청은 경남 함안군 지역 전략 작목으로 육성 중인 멜론 '백자', '노을'을 지난달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하고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 대상으로 시장성 평가를 하였다.

이번 시범 수출은 신선 멜론 수출 활성화 및 기술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수출 물량은 '백자'와 '노을' 멜론 각 280kg씩 총 560kg이다. '백자'와 '노을' 멜론은 무가운 재배로 생산되는 멜론 중 전국에서 가장 빨리 출하되며, 경남 함안군에서 상품 등록을 했다.

농촌진흥청은 비파괴선별기를 통해 당도 15브릭스 이상과 싱가포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당 1.2kg의 크기인 프리미엄급 멜론을 선별해 선적했다. 수출 길에 오른 멜론은 싱가포르 매장에서 판매하는 타 국가의 멜론보다 1.4~4.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한편 중장기 수출 유망 품목 육성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개씩 총 30개를 선정하고 있는데, '백자', '노을' 멜론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2020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선정됐다.

* '20년 수출 유망 품목(6)

→ 멜론(백자·노을), 사과(아리수), 배(그린시스), 프리지어, 양잠산물, 특수미(향미)

농촌진흥청은 이번 시범 수출을 통해 한국 멜론의 인지도와 선호도, 품질, 경쟁력 등 현지 시장성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중 수출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멜론 (백자) >



< 멜론 (노을) >



< 멜론 시범 수출 기념 >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국산 신선 당근 미국 수출 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당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어 올해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제주산 당근 수출 요청(2014년)에 따라 미국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5일 미국 검역 당국이 연방관보에 「한국산 당근의 수입요건」을 최종 공고함으로써 한국산 당근 수입을 공식화하였다. 국산 당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은 이력 추적을 위해 농가 및 선별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당근을 세척 및 표면 살균처리 등을 하는 것이다. 검역본부는 검역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당근의 미국 수출 요령」을 통해 7월까지 제정·고시하여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농산물 대만 수출 더 쉬워진다!!

(수출 농산물의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 면제 합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의 기재 의무가 면제(사과·배·복숭아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어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전 컨테이너 번호 확인에 따른 수출 검역 지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위장수출 문제 미발생 및 모든 농산물에 의무 사항 적용 과도 등에 대한 대만 측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는 검역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



-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